

‘대수비’ 전문 고영우의 반전



**경기 출장수보다 타석이 적었던 선수
최근 6경기 3할대 타율 알토란 활약
“kt서 뛰는 동생 영표랑 대결하고파”**

고영우의 반전이 ‘호랑이 군단’의 타선에 불을 붙인다. KIA 타이거즈의 6월에는 예상치 못했던 공격 자원이 있다. 수비로 외야 한 자리를 차지했던 김효령이 공격 실력까지 갖추면서 부지런한 테이블 세터 역할까지 맡게 됐다. 여기에 또 다른 ‘수비형’ 선수의 진화가 있다. 대수비·대주자로 만점활약을 해주던 고영우가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야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타자지만 타석이 여색했던 고영우다. 빠른 발을 가진 고영우는 경기 후반 대주자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대수비로 출석 도장을 찍었다. 포수를 제외하고 전 포지션에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으로 ‘대수비’로 주로 뛰면서 경기 출장 수보다 타석이 적은 묘한 기록을 가지고 있던 타자다. 묵묵히 내·외야를 오가며 기회를 노리

던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었던 고영우는 지난 1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한 이후 빠지지 않고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5일 경기부터는 주 포지션이 유격수 자리를 맡아서 유격수 고영우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안정된 수비 실력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반전은 타석에 있었다. 고영우는 스타팅으로 나왔던 지난주 6경기에서 18타수 6안타, 0.333의 타율을 기록했다. 19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2타점 적시타도 때려내면서 쉬어가던 KIA의 9번 타수에 힘을 불어넣었다.

고영우는 “정확하게 맞추자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출루할 생각만

하다 보면 좋은 공을 놓치게 되고 어렵게 승부를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또 타석에 많이 들어서면서 공이 눈에 보이니까 더 좋은 타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분석과 화면 만으로는 투수와 상대하기 어려운 타석에서 공을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입지를 굳힌 것은 아니다. 고영우의 남은 시즌 목표도 그래서 ‘발전’이다.

고영우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야 한다. 그게 목표다”며 “동생 영표(kt)가 팔꿈치가 좋지 않은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한다. 내가 지금 모습을 유지하면 동생과의 맞대결도 올 시즌에 가능할 것 같다. 동생과의 맞대결이 기대되고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 김여울기자 wool@

“146km 던진 김진우, 몸 상태 지켜봐야”

덕아웃 T 특특

▲주자가 안 보였어요= 앞짜베기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서동욱이다. 서동욱은 지난 19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원한 만루 홈런을 터트리면서 9-5 승리의 주역이 됐다. 승리를 이끈 이 홈런은 올 시즌 KIA의 첫 만루홈런이자 5년 만에 나온 서동욱의 만루포였다. 서동욱은 “찬스에서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주자가

안 보였어. 홈런을 치고 돌면서도 만루라는 게 의식이 안 됐었다”며 “타점이 가장 욕심이 나는데 타점을 올리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 “게임 수에도 욕심이 난다. 많은 경기에 뛰고 싶다. 여름에 강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저한테 실망했어요= 맞으면서 큰 루키 정동현이다. 씩씩한 피칭으로 선발 한자리를 차지한 정동현은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첫 등판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

가 됐던 그는 두 번째 등판에서는 불붙은 두산 방망이에 4.1이닝 7실점을 기록했다. 두 개의 피홈런보다 더 아쉬웠던 것은 사수였다. 이날 정동현은 3개의 볼넷과 2개의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다. “코너코너로 던지려고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경기를 돌아온 정동현은 “저한테 실망했어요”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많이 배웠다”며 다음 등판의 각오를 다진 정동현. 장맛비가 막지 않는다면 정동현은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세 번째 선발 등판을 한다.

▲내일 봐야하니까요= 팔꿈치 수술로 재활을 하였던 김진우가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진우는 21일 한화와의 퓨처

스 경기에 선발로 나와 2이닝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했다. 23개의 직구와 2개의 슬라이더를 던진 김진우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였다. 기록, 스피드 모두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김진우 감독이다. 김 감독은 “피칭은 시작했지만 일단 내일을 지켜봐야 한다. 던진 후의 몸상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챔피언십리그에서는 김윤동과 임창용이 컨디션 점검을 했다. 김윤동은 옆구리 근육 파열 부상 이후 퓨처스에서 실전 경기를 소화해왔다. 복귀까지 9경기 남은 임창용은 야간 경기의 감을 살리는 측면에서 1군 선수단을 찾았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사격팀 창단 리우패럴림픽 ‘금빛 조준’

광주시가 장애인사격팀을 창단했다. 스포츠팀 창단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 사격팀은 21일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창단식을 갖고 ‘금빛 조준’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단은 윤금석 감독을 중심으로 김근수(지체장애 1급·SH2 소총)·이지석(“·”)·김정남(“·SH1권총)·이유정

(여·SH1소총) 등 4명이 호흡을 맞춘다. 광주 장애인사격팀은 오는 2016리우패럴림픽에 김근수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비롯, 제 18회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제 3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출전한다는 목표로 강화 훈련을 벌인다는 각오다. 이유정 선수는 이날 창단식에서 “광주 6만9000여명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장애인사격팀은 21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창단식을 하고 ‘금빛 조준’을 시작했다.윤장현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선수단 창단을 축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가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추신수 역전 2타점... 텍사스 7연승

강정호는 SF 범가너에 침묵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역전 2타점 결승타를 쳐내고 팀의 7연승을 이끌었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내셔널 리그 최강인 시카고 컵스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무실점 호투했다.

추신수는 21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단 하나의 안타를 쳐냈으나 승부처에서 나온 가치 있는 적시타였다.

1회와 3회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팀이 2-3으로 추격해 4회말 2사 2-3루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추신수는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볼티모어 선발 케인 가우스먼의 4구째 슬라이더(약 130km)를 통타해 오른쪽 담장을 직접 때리는 2타점 역전 적시타로 연결했다. 추신수의 이 한 방에 텍사스는 4-3 역전에 성공하며 7연승을 질주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3-4로 뒤진 9회초 리카르도의 타석에서 대타로 기용됐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

오승환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서 3-2로 앞선 7회말 2사 1루에서 선발 하이메 가르시아에 이어 마운드로 올랐다.

오승환은 3번 타자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풀카운트 점전 끝에 6구째 148km(92마일) 포심 패스트볼로 우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끝냈다. 8회말에도 마운드로 오른 오승환은 4번 타자 앤서니 리조에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윌슨 콘트레라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수-유격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했다. 오승환은 하비에르 바에스를 6구째 142km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1.1이닝을 1피안타 1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오승환은 올 시즌 13번째 홀드를 기록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좌완 에이스 매디슨 범가너(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막혀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세 차례 모두 범가너와 상대했고, 강정호가 완패했다. /연합뉴스

아빠, 16강 간단다

유로 2016 B조 조별리그 3차전 첫 출전 웨일스, 러시아 3-0 완파 3경기 연속 득점 베일 ‘득점 선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본선에 처음 출전한 웨일스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웨일스는 21일 프랑스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16 B조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가레스 베일(사진)의 활약을 앞세워 러시아를 3-0으로 완파했다. 2승 1패(승점 6)가 된 웨일스는 같은 시간 슬로바키아와 0-0으로 비긴 잉글랜드(1승 2무·승점 5)를 제치고 B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웨일스는 유로 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러시아는 1무 2패로 탈락했다.

경기 초반부터 웨일스는 승리가 필요했던 러시아를 몰아붙이며,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다. 역습으로 만든 찬스에서 조 앨런이 넘겨준 공을 애

런 램지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 골은 결승 득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웨일스는 9분 뒤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전반 20분 베일이 드리블하다가 수비수에 걸린 공이 네일 테일러에 연결됐다. 테일러의 왼발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지만, 다시 시도한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웨일스는 후반 22분 러시아를 격침했다. 역습을 만든 램지가 상대 페널티아크 지역에서 샘 보스에게 연결하는 공을 뒤에 있던 베일이 오프사이드 트래크를 뚫으며 골키퍼와 맞섰다. 베일은 왼발 슈팅으로 다시 러시아의 골문을 뚫으며 3-0을 만들었다.

웨일스는 러시아의 반격을 잘 막아내며 귀중한 승점 3을 얻어 사상 첫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같은 시간 프랑스 생테텐 스타드 조프루아 기샤르에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슬로바키아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1, 2차전의 선발 명단에서 6명을 바꾼 잉글랜드는 제이미 바디를 앞세워 슬로바키아의 골문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전반 공격이 여의치 않자, 후반 11분에는 웨인 루니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으나 결국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비겼다. /연합뉴스

